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Portal Site

곽승진, LG상남도서관

Kwak Seung-Jin, LG Sangnam Library

인터넷 이용 경험이 적은 초보자 뿐만 아니라 경험자도 인터넷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 정보자원은 급증하는 반면 인터넷 검색엔진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확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의 관문 즉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처음 접속하는 사이트인 포털사이트(Portal site)를 전문화하여 궁극적으로 포털을 정보이용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 모형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있다.

1.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인프라의 확대로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1999년 3월 말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3백68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58만명이나 늘었으며, 3개월만에 지난 1년간 증가한 이용자의 35%가 늘어난 셈이다. 6월중 4백만명, 연말에는 5백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1998년 말 기준 1억2천5백33만2천명으로 늘었다. 올해 말에는 1억6천만명, 2000년엔 2억명에 이르고 2005년에는 7억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터넷에 게재되는 정보는 1997년 12월 약 3억2000만 페이지에서 1999년 2월에는 약 8억 페이지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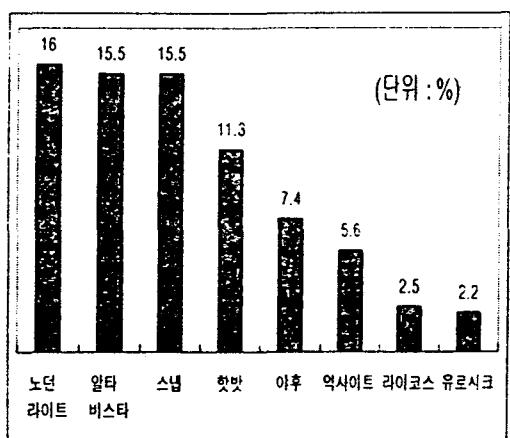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수백, 수천 개가 도출되는 검색결과에 실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또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인터넷

정보는 급증하는 반면 인터넷 검색엔진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 주는 확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분의 인터넷 검색 엔진들이 제공해 주는 자료는 인터넷 전체의 16%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위치한 NEC 연구소가 최근 주간지 '네이처'에 게재한 보고서에 의하면 검색엔진들의 적중률은 34%에서 약 16%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 연구소는 최근 11개 검색엔진에 1,050 개의 질의사항을 입력,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고 밝혔다. 가장 높은 적중률을 기록한 검색엔진은 노던라이트(Northern Light)로 질문의 약 16%에 대한 자료를 찾아내었다. 알타비스타와 스냅은 15.5%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야후와 라이코스, 의사이트 등은 7.4%, 2.5%와 5.6%를 찾아내는데 그쳤다. 오히려 애스크(ask.com)나 메타크롤러 등 한꺼번에 여러 검색엔진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메타 검색엔진들이 적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NEC 연구소 측은 검색 엔진들이 특정 사이트들에만 편중해 있다는 것을 큰 이유로 꼽았다. 즉 접속률이 많은 사이트에만 링크를 해 놓다 보니 이용자들은 한정된 자료만을 제공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림 1> 주요 검색엔진 적중률



만약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형태를 단순화시키는 편리함과 구조를 계속 제공한다면 인터넷 이용 경험자뿐만 아니라 초보자나 새로운 이용자에게는 상당한 이점이 될 것이다.

2. 포털사이트의 이해

포털(Portal)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처음 시작하는 입구, 관문을 뜻한다. 인터넷에서 포털사이트(Portal Site)는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처음 접속하는 사이트로 인터넷 길잡이 홈페이지를 말한다. 그러나 구분할 것은 웹브라우저가 처음 시작할 때 접속하는 시작 페이지(Start Page)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즉 시작 페이지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 자주 활용하는 초기 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

포털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는 Content, Communication, Community, Convenience, Commerce 등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검색 및 디렉토리 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무료 전자우편, BBS, 채팅, 개인홈페이지 공간 제공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뉴스, 날씨, 주식, 이벤트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물품을 거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거래 장소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오락 등에 관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의 결합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는 단순히 이러한 요소의 결합체가 아닌 이용자들의 요구를 사이트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처럼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정보 접근 경로를 제공하고, 전자우편과 개인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대화방, 게시판 등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는 외국의 야후, AOL,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국내의 심마니, 한메일넷, 네이버, 신비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종합 포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게임, 연예, 주식 등의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포털사이트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술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이트는 아직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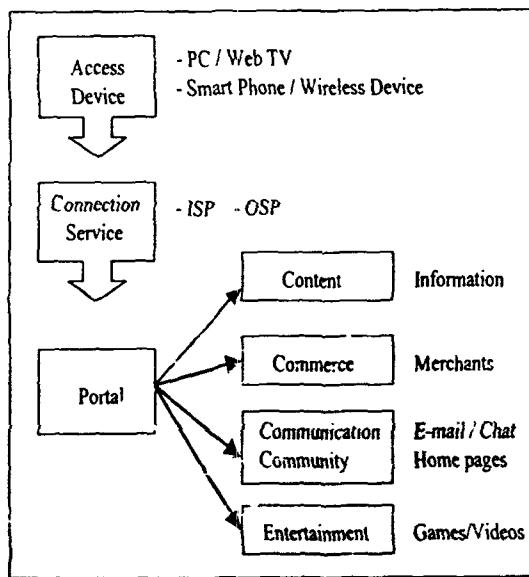
포털사이트는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간편하고 체계적이며 구조적인 환경으로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행위를 단순화시키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증가로 많은 공공도서관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서관의 자료를 시공을 초월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는

대부분 도서관 소개, 이용방법, 자관이 보유한 서지정보를 중심으로 한 정보서비스와 웹사이트 추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전문도서관 및 대학도서관도 자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서지정보와 부분적으로 자료의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전자도서관구축사업 및 정보화근로사업으로 많은 디지털정보가 제작되고 있으나 아직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단계 및 형태



또한 국내에서 구축되어 운영중인 대부분의 디지털도서관은 아직은 초기적인 단계로 자관에서 보유중인 자료의 디지털화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자체 구축한 전문DB와 인터넷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디렉토리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접근경로를 확보하고, 많은 인터넷 부가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한 단계 발전된 디지털도서관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전문포털사이트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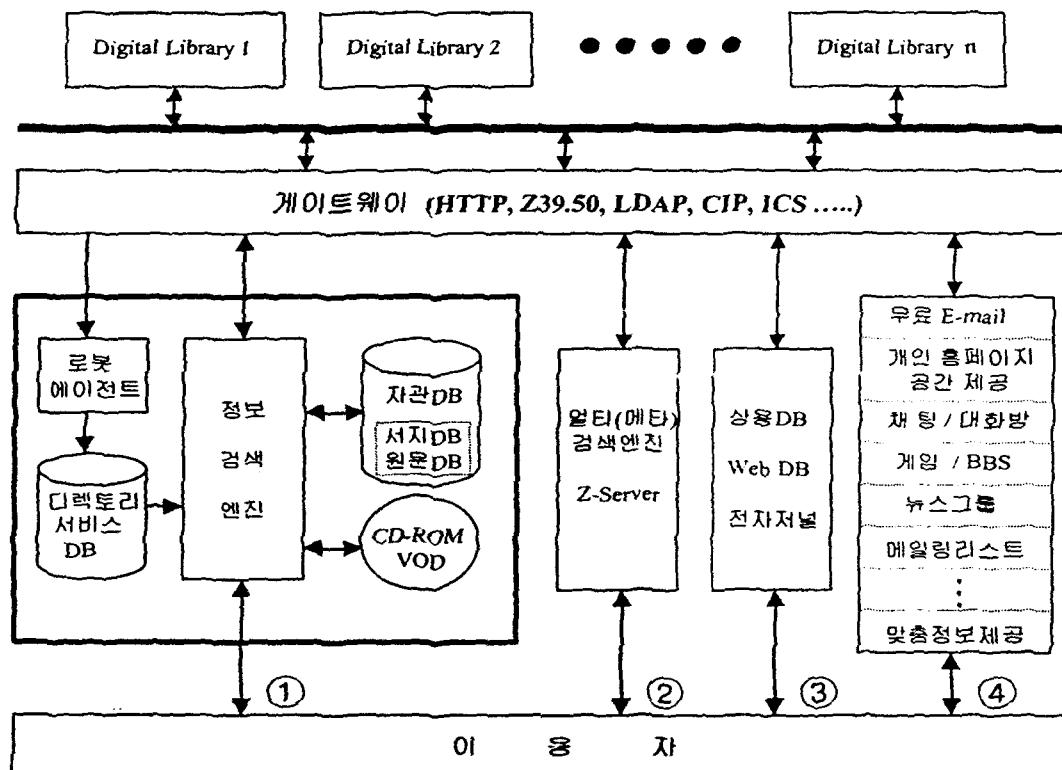
4. 전문 포털사이트의 구축

현재 포털사이트는 크게 종합 포털, 전문 포털, 세분화된 2차 전문 포털로 구축되고 있으며, 향후 국세분화된 전문 포털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 포털사이트의 구축은 <그림 3> 전문포털사이트 모형과 같이 이용자의 이용경로를 네 개로 나누었다. 이용자의 이용경로는 먼저 자관에서 구축한 전문DB와 로봇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디렉토리 DB를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멀티(메타) 검색엔진 또는 Z-server 등을 이용하여 자관의 정보와 인터넷에 연결된 전문화되고 특화된 디지털도서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 상용DB와 Web DB, 전자저널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대부분의 종합 포털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부가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환경과 여건,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혼합하여 구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먼저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와, 각종의 DB를 마치 하나의 통합된 DB처럼 검색할 수 있어 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종합적 검색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기본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법이 간단하다. 정보 제공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DB를 추가하기가 용이하고, 개별적인 검색시스템들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정보원천에는 변경 없이 새로운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어 이용을 확대할 수 있고, 웹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며, 사용자별로 계정을 발급하여 지적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림 3> 전문 포털사이트 모형



5. 결론

인터넷은 태생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이용자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이용형태를 단순화시키기를 원하는 새로운 이용자를 위해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털사이트의 성공여부는 이용자들이 그 곳을 다시 찾아오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 포털을 정보 이용의 최종 목적지로 여기도록 만드는 데 있다.

포털은 인터넷이 발전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이며 미래의 발전된 모습은 현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선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학술분야 전문 포털사이트의 가치는 특화되고 차별화된 전문 디지털 컨텐츠와 부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것인데 인터넷의 인프라가 발전하고, 미래

에 저능적이고 자동화된 애이전트가 생겨나서 찾고자하는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나온다면 포털의 필요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이란주, 윤소정. 1998. “도서관 홈페이지 설계에 관한 연구-인터페이스와 정보자료구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현정보학회지* 32(4): 141~157.
- 이창렬. 1998. “디지털 라이브러리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현정보학회지* 32(4): 117~140.
- 최재황. 1998. “인터넷 학술정보자원의 디렉토리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DDC 분류체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5(2): 47~67.